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야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천하게 아리땁다.

문헌의 첫 기록
17세기

수록 용례
8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야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아래 문헌의 뜻 구분은 원자료를 따르며, 오늘날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천하게 아리땁다.

야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야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冶ᄒᆞ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야ᄒᆞ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야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冶ᄒᆞ- 문헌 수록 표기	—	—	●→	—	—	—
야ᄒᆞ- 문헌 수록 표기	—	—	—	—	●→	—
야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冶ᄒᆞ다
  17세기
- 야ᄒᆞ다
  19세기20세기
- 야하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冶ᄒᆞ-, 야ᄒᆞ-, 야하-

야하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야하다’는 17세기에 한자로 표기된 ‘冶ᄒᆞ다’로 나타나고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야ᄒᆞ다’로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야ᄒᆞ-’는 한자어 ‘冶’를 한글로 표기한 ‘야’와 현대어 ‘-하-’로 이어지는 ‘-ᄒᆞ-’가 결합한 것이다.

표기 방식과 특징

20세기에 ‘ㆍ’가 ‘ㅏ’로 표기된 ‘야하-’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뜻과 쓰임

‘야ᄒᆞ-’는 17세기에 꾸미다, 치장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19세기에는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20세기 전반에 화려하다라는 의미를 거쳐 20세기 후반에는 외설스럽다, 선정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문헌 속의 야하다

전체 용례 8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꾸미다, 치장하다문헌의 뜻 · 전체 1개

17세기 冶ᄒᆞ-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冶ᄒᆞ-

출처 1606 주역언해 5:19ㄱ

용례 01

문헌 용례

藏을 慢히 홈이 盜를 誨ᄒᆞ며 容을 冶홈이 淫을 誨홈이니.

현대어 풀이

물건 간수하기를 게을리함이 도적을 부르며 용모를 치장함이 음란함을 불러일으키니.

대응 원문

慢藏이 誨盜ㅣ며 冶容이 誨淫이니

예쁘다, 아름답다문헌의 뜻 · 전체 1개

19세기 야ᄒᆞ-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야ᄒᆞ-

출처 1880 한불자전 11

용례 02

문헌 용례

야ᄒᆞ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려하다문헌의 뜻 · 전체 4개

20세기 야하-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야하-

출처 1928 숙박기 1 용례 03

문헌 용례

주인이라는 녀자는 홀삭한 몹집에 몃물 빠른 듯하기는 하나 나히 보아서는 야한 문의가 잇는 「긴샤지리멘」(왜비단)의 하오리(웃옷)을 걸치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5 황금과장미 38 용례 04

문헌 용례

야한 빛갈의 양복에다 더욱이 새파란 「셋타」. 빨간 「넥타이」를 한 것을 보아 남자는 암만해도 부랑자.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62 동아일보 11월 23일 5면 용례 05

문헌 용례

빨강이나 남색이면 야한 감을 주었을 텐데 엷은 「브라운」색에 찬란한 꽃무늬가 있어서 아주 좋았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68 경향신문 10월 30일 7면 용례 06

문헌 용례

표지 빛깔도 야한 원색만 쓰던 것을 윤리위가 강력히 규제하여 갱지 이상 종이에, 표지는 되도록 원색을 피하고 페이지 수도 50면에서 1백 면으로 늘렸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설스럽다, 선정적이다문헌의 뜻 · 전체 2개

20세기 야하-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야하-

출처 1976 동아일보 2월 28일 5면 용례 07

문헌 용례

서툴고 짙은 화장을 덕지덕지하고 울긋불긋 야한 옷을 떨쳐 입고 세찬 풍우 속을 오로지 몸을 팔러 달려온 이 늙은 여자에게 허성 씨는 쉽사리 감동한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79 동아일보 12월 12일 5면 용례 08

문헌 용례

작부들은 하나같이 함부로 푹푹 파이고, 아무 데나 부글부글 끓어오른 빛깔 야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야하다에 관한 주석

한자 '冶(야)'는 명사로는 '풀무', '대장간', '대장장이', '들'을 뜻하고 동사로는 '단련하다', '꾸미다'를 뜻하며 형용사로는 '예쁘다'를 뜻한다. '풀무'는 대장간에서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로, 대장간에서 쇠붙이를 뜨겁게 달구기 위해서는 이 풀무가 꼭 필요하다. 이로 인해 '풀무'를 뜻하는 '冶(야)'가 '대장간', '대장장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대장간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쇠붙이를 내리쳐서 여러 가지 모양의 단단한 연장을 만드는데, 이 과정을 '단련(鍛鍊)'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풀무'를 뜻하는 한자 '冶(야)'가 '단련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대장간에서 빨갛게 달구어진 쇳덩어리를 이리저리 내리쳐 모양을 잡아가는 과정은 얼굴 여기저기에 분을 바르고 치장을 하여 사람이 점점 예쁜 모습으로 변해 가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로 인해 한자 '冶(야)'가 '꾸미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번역한 '冶ᄒᆞ다' 역시 17세기에 '꾸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 '야ᄒᆞ다'는 19세기에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꾸민 모습'이 결과적으로 '예쁜 모습'으로 인식되면서 '야하다'의 의미가 동사 '꾸미다'에서 형용사 '예쁘다'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전반에는 '야하다'가 '화려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때의 '야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 무늬가 현란하거나 색상이 지나치게 원색으로 강렬한 느낌을 줄 때 주로 사용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지나치게 화려한 무늬나 노랑, 빨강 등의 진한 원색을 아리따우면서도 천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러한 부정적인 쓰임이 확대되어 1970년대에는 노출이 심한 옷이나 노출이 심한 모습을 '야하다'고 표현하였

는데, 노출이 심한 옷이나 노출이 심한 모습이 대개 성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키다 보니 결국 ‘야하다’가 ‘외설스럽다’, ‘선정적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야하다의 보충 설명

‘冶ᄒᆞ다’는 17세기에 ≪주역≫의 한 구절인 ‘慢藏誨盜 冶容誨淫(만장회도 야용회음)’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자 ‘冶(야)’에 ‘-ᄒᆞ-’를 결합하여 만든 번역 투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주역의 이 구절은 ‘물건 간수하기를 게을리함이 도적을 부르며 용모를 치장함이 음란함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으로, 이로부터 ‘冶容之誨(야용지회)’라는 사자성어가 나오기도 하였다. ‘冶容之誨’는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는 것은 남을 음탕하게 만들기 쉬움’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이때의 ‘冶’는 ‘꾸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야하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이동석 2024 ‘야하다’의 어휘사 《우리어문연구》 78, 우리어문학회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야하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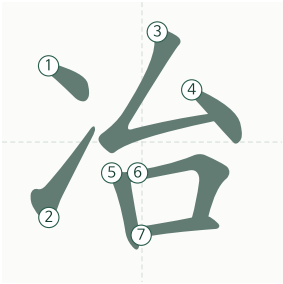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冶

뜻·음 풀무 야

총 7획 · 부수 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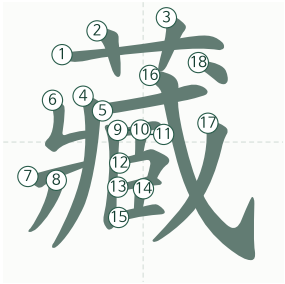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冶/

藏

뜻·음 감출 장

총 18획 · 부수 艸





hanja.wordrow.kr/한자/藏/

慢

뜻·음 거만할 만

총 14획 · 부수 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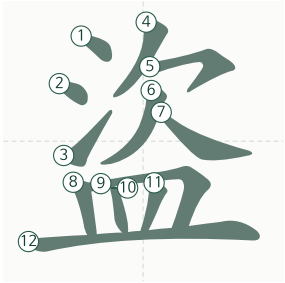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慢/

盜

뜻·음 도둑 도

총 12획 · 부수 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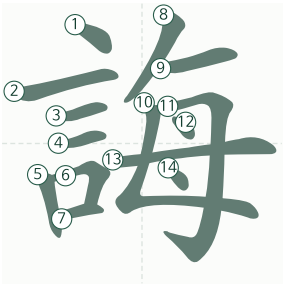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盜/

誨

뜻·음 가르칠 회

총 14획 · 부수 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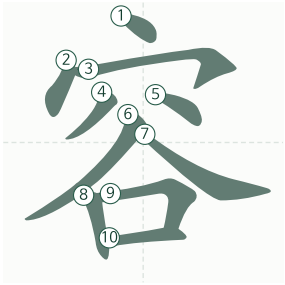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誨/

容

뜻·음 얼굴 용

총 10획 · 부수 宀





hanja.wordrow.kr/한자/容/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한자 한눈에 보기

2 / 2 · 12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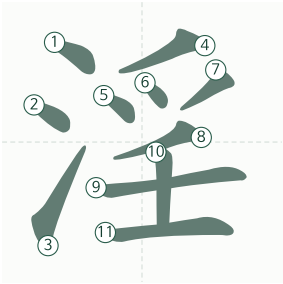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淫

뜻·음 음란할 음

총 11획 · 부수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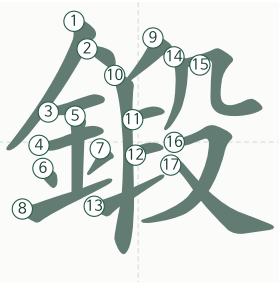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淫/

鍛

뜻·음 쇠불릴 단

총 17획 · 부수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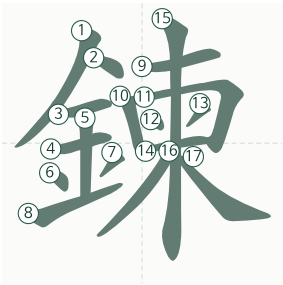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鍛/

鍊

뜻·음 쇠불릴·단련할 련

총 17획 · 부수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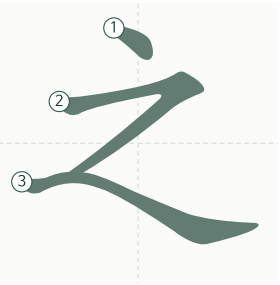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鍊/

之

뜻·음 갈 지

총 4획 · 부수 丿





사전 4획 · 획순 그림 3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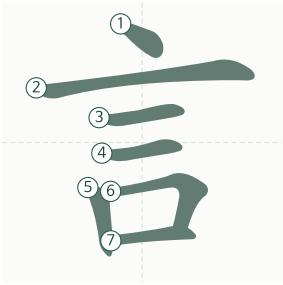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之/

言

뜻·음 말씀 언

총 7획 · 부수 言





hanja.wordrow.kr/한자/言/

金

뜻·음 쇠 금 / 성(姓) 김

총 8획 · 부수 金

본문 金



金

획순 자료 미제공

hanja.wordrow.kr/한자/金/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사전 상세 항목이 없는 본문 한자: 氵 · 丿 · 亠.